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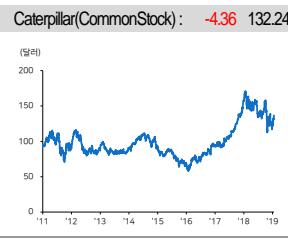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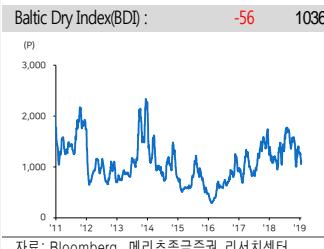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10,085.2	16.6	142,500	0.4	12.2	13.1	10.9	993	47.6	0.7	0.7	0.7	1.4
현대중공업주	5,903.9	21.0	362,500	-1.4	-1.6	-1.4	4.8	4.9	4.1	0.6	0.6	14.1	14.7
현대알렉트릭	489.6	5.1	24,050	-1.0	5.5	-28.0	8.3	23	2.0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1,036.3	7.7	52,600	-1.1	22.9	-7.7	23.2	3.3	2.5	0.4	0.3	11.7	13.9
삼성중공업	4,964.4	17.9	7,880	-1.1	3.4	9.3	6.3	49.7	24.7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634.3	11.0	33,900	-0.3	-2.3	9.0	-0.7	11.6	16.4	1.0	1.0	9.6	5.6
현대미포조선	2,584.3	11.5	64,700	0.5	1.1	37.1	7.8	14.0	10.1	0.5	0.5	3.6	4.8
한진중공업	125.1	4.6	1,180	-1.3	-34.1	-40.4	-28.7	23.7	5.9	0.2	0.2	0.7	2.8
현대엘리베이터	3,041.7	20.6	112,000	-0.9	12.0	17.9	4.7	198	192	2.7	24	14.6	13.3
두산밥캣	3,368.4	27.5	33,600	-0.3	4.5	-12.7	6.7	12.3	11.6	0.9	0.9	7.4	7.6
현대로템	2,388.5	3.3	28,100	0.0	-1.1	6.4	0.9	362	24.7	1.6	1.5	4.5	6.3
하이록코리아	262.7	47.3	19,300	-4.5	16.3	-152	17.3	8.7	8.0	0.7	0.7	8.8	9.0
성광밴드	320.3	15.4	11,200	0.0	-1.3	-9.3	-1.8	990.1	402	0.7	0.7	0.1	1.8
태광	324.6	11.9	12,250	0.0	7.5	-6.8	4.7	732	35.7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288.6	13.5	11,000	0.0	0.9	-102	13.1	-47.0	10.6	0.4	0.4	0.2	3.9
두산인프라코어	1,748.5	20.6	8,400	-0.9	9.2	-5.8	10.7	5.8	5.4	0.9	0.8	17.4	16.0
HSD엔진	190.4	4.9	5,780	0.0	7.6	344	9.5	-152	-13.9	0.8	0.9	4.7	6.0
한국항공우주산업	3,319.0	13.9	34,050	-1.2	5.7	7.6	6.7	45.7	24.6	3.0	2.7	6.5	11.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18.4	14.7	31,100	-1.1	-6.9	5.4	-4.3	92.7	232	0.7	0.7	0.8	3.1
LIG넥스원	786.5	10.1	35,750	-0.6	6.6	8.5	-3.2	102.3	20.5	1.5	1.5	2.0	20.4
태웅	224.1	5.1	11,200	-3.0	12.9	-4.3	6.7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04.8	5.6	7,590	-1.4	0.8	-4.4	-1.7	-15.1	29.1	2.9	2.8	-17.5	9.9
한국카본	313.9	14.6	7,140	-1.7	0.3	1.7	1.4	111.2	22.3	1.0	1.0	0.9	4.5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표 및 차트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전세계 조선사 절반 문닫는다. 韓 1위 '장기집권' 간다

Clarksons에 따르면 2018년 말 전세계 330개 조선사 가운데 150개가 올해 마지막 건조물량을 인도하고 폐쇄될 것으로 추산됨. 330개 조선사 중 1척도 수주하지 못한 곳은 190개, 그 중 102개는 지난 3년간 수주실적이 없었다고 알려짐. 중국 조선사는 09년 396개에서 18년 말 110개로 감소함. (머니투데이)

## Alfa Laval defends its scrubbers as hybrid-ready

세계 3대 스크러버 제조업체인 Alfa Laval은 최근 Open-loop 스크러버 운항금지 구역이 증가함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알려짐. 관계자에 따르면 Alfa Laval이 디자인한 모든 Open-loop 스크러버는 Hybrid-Ready 형태로 제작되어, 규제가 도입되면 선주들이 Hybrid 형태로 개조할 수 있다고 언급함. (TradeWinds)

## 케미컬 선사의 시장불황 극복을 위한 M&amp;A 등 제휴 확대

케미컬선 시장이 공급과잉에 의한 시황침체에도 개발도상국 향 수요로 향후 M&A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됨. 최근 MOL케미컬탱커는 덴마크 케미컬 선사 Nordic Tankers 매수를 발표함. 또 싱가폴 선사 Eastern Pacific Shipping은 선주사인 BW그룹에서 케미컬선 13척 취득을 결정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Oman Shipping eyes bulker, boxship orders after DSME deal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VLCC 2척을 발주했던 Oman Shipping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도 선대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짐. 2019~20년 사이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했던 VLCC는 스크러버가 장착된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처는 고사양 선박을 선호할 가능성성이 있음. (TradeWinds)

## '큰손' 그리스, 韓 B3 LNG선 고집하는 이유는

업계에 따르면 2018년 그리스 상위 3개 선사인 마란가스, 가스로그, 카디프가스는 국내 조선 3사에 LNG선 13척을 발주함. 그리스는 국가 기준으로 최대 발주국으로, 조선 3사의 18년 LNG선 수주량 60척의 22%에 달하는 규모임. 그리스 선사의 조선 3사에 발주한 이유는 LNG선 재액화장치 기술력으로 알려짐. (EBN)

## 두산인프라, 中 광산업체와 굴착기 36대 공급 계약 체결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광산회사 '네이멍구 물신 석탄 유한책임회사'에 대규모 굴착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공급규모는 80톤급 6대, 52톤급 20대, 38톤급 10대 등 총 36대임. 굴착기는 중국 광산 밀집지역인 네이멍구에서 쓰일 예정이며, 구매처는 그동안 주로 타사 제품을 사용했다고 알려짐. (이데일리)